

## 신문유통원, 사채도 끌어냈다

### 정부기관 예산운용원칙 어긴 사상 초유의 일

#### 청와대 "파행운영 지속"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인 신문유통원의 강기석 원장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 경비 명목으로 사채(私債)를 끌어다 쓴 사실이 밝혀졌다. ▶A4면에 관련기사

정부 예산 등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기관장이 기관 운영을 위해 사채를 차입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해철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16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기석 신문유통원장이 올 5월 개인 사채를 차입해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등 파행 운영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 원장은 올

#### 강기석원장 5월 2억빌려 운영경비 사용 "예산배정 늦어져 업무차질... 한달후 갚아"

해 신문유통원에 책정된 예산 100억 원 가운데 90여억 원의 교부가 수개월간 지연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자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예산처 당국자는 "정부 산하기관은 '수입(收入) 대비 지출 원칙'을 지켜 되어 있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국환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장은 구체적인 코멘트는 거부한 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의 사채 차입은 신문유통원 장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문유통원 정관 15조는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본보 기자와 만나 "사채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지인과 친척 등 총 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빌려 사업비로 사용한 뒤 6월 중순 예산이 집행돼 다 갚았다"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의 최고경영자(CEO)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신철식 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예산 집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신문유통원 예산은 일종의 '조건부 출자'로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질 때 집행하게 되어 있다"며 "반약 집행했으면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다음 해 예산 배정을 못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현진권(경제학) 교수는 "정부 산하기관장이 돈을 빌렸다는 것은 일개 개인이 돈을 빌린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며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적조 바다에 '황토 응급조치' 경남 남해군 서쪽 바다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16일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벽면마을 앞바다에서 황토 살포작업을 하고 있다. 황토는 적조를 일으키는 미생물을 빨아들인 후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남해=최재호 기자 choi92@donga.com

## 靑 "이백만수석이 K씨 추천한건 사실"

#### 유전차관 경질배경 첫 해명 이백만-양정철씨 만나타나

청와대는 16일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 파문에 대해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아리랑 TV 부사장직에 K 씨를 추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기본적으로 이 수석이 K 씨를 추천해 (인사협약)가 시작됐다. 그것이 잘 관철이 안되고 이견이 있으니까 관련 비서관(양정철 국정홍보비서관)이 문화부에 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비서관은 유 전 차관을 경질한

이유에 대해 "신문유통원 운영이 어렵다고 정보가 계속 보고돼 6월 중순 경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 신문유통원, 청와대 관계자 등 10여명에 대해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유 전 차관이 신문유통원 사업 부진에 정무적 책임이 있다"고 경질 배경을 밝혔다.

전 수석은 "정무적 책임이라든가 왜 장관을 경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3월에 교체돼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유 차관이 임명된 시기도 2월이어서 시기에는 큰 차이

가 없다. 청와대가 유 전 차관의 경질 사유에 대해 공개 해명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본보는 16일자(A 5면)는 '의명의 장막' 뒤에서 이루어지는 청와대의 '이상한 해명'을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 전 차관이 인사 청탁을 했다고 지목한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발행면수 A36 B12

## "개학하면 맘놓고 먹을수 있나요"

### 교육부, 초중고 9186곳 급식 위생 점검

#### 4곳중 3곳 조리-세척실 분리 안돼 "살균처리된 식자재 쓴다"는 55%뿐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의 사상 최대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전국 9186개 초중고교의 급식 시설과 식품검수 등 7개 분야를 점검한 결과 위생 설비가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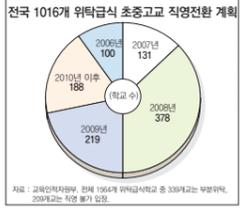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직영급식 8024개교(87.4%)와 위탁급식 1161개교(12.6%) 가운데 76%인 6982개교가 전처리실(식자재를 밀폐 공간에서 씻고 살균 처리하는 장소)과 조리실, 세척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 음식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위생과 직결되는 전처리실이 없는 학교가 절반 이상(57.5%)이었고, 상당수 학교가 보냉고(保冷庫·77.7%)와 보온고(保溫庫·89.2%)를 갖추지 않고 있었다.

위생적으로 전처리된 식자재를 사용하는 학교는 55%에 불과했다. 또 식자재 가운데 HACCP(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체 유해요인을 단계별로 찾아내 제거하는 종합관리체계) 인증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은 직영급식 학교(6.4%)보다 위탁급식 학교(17%)

가 2.7배가량 높았다.

조리용수는 90%가 상수도를 사용하지만 농어촌 지역 등 상수도가 없는 10%(922개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중 4.4%가 염소소독을 실시하지 않아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016개 위탁급식 초중고교 직영전환 계획

#### 직영전환 지지부진... 정부, 강제조치 검토

위탁급식 학교가 직영급식 학교보다 지적사항이 더 많았지만 위탁급식 학교들은 6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3년 이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직영 전환 시기를 늦추려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1564개 위탁급식 학교의 직영전환 계획을 취합한 결과 1016개교(65%)가 직영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반이 넘는 509개교가 2009년 이후에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교육당국은 개정 학교급식법이 의무교육기관(초중학교)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만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학교부터 직영급식으로 강제 전환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07년 서울시내 모든 중학교 238개교, 2008년 공립고와 실업고교 160개교, 2009년 사립고 및 직영 전환이 어려운 학교 222개교를 단계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첫 여성 헌재소장' 전효숙씨 내정

### 대통령지명 뒤 재판관엔 김희옥씨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14일 퇴임하는 운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55·사법시험 17회·사진) 현재 재판관을 내정했다.

▶A3면에 관련기사

노 대통령은 또 윤 소장과 함께 임기가 끝나는 대통령 지명 묵인 송인준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희옥(58·사시 18회)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소장에 지명된 전효숙 내정자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김경일 재판관

후임에 민행기(사시 16회) 인천지법원장과 김종대(사시 17회) 창원지법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전효숙 내정자는 조만간 현재 재판관직을 사퇴한 뒤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6년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며 "판례상 현재 소장은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부인사를 들여오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사퇴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현재 재판관으로 발탁된 전 내정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1988년 헌법 재판소 출범 이후 사상 첫 여성 소장이 된다.

청와대가 2003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전 내정자를 사퇴시킨 후 대통령 추천 형식을 빌려 소장에 임명된 뒤 새롭게 6년 임기를 보장하려는 데 대해 '판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조용우 기자 woogja@donga.com

### 여름철 세균戰

## 필승전략 유한락스!

이질, 비브리오, 살모넬라 등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세균 - 유한락스 1·1·1 청소전략으로 깨끗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 집안 위생엔 유한락스! 1·1·1 청소전략은 건강한 여름의 필수!

<b>전략1</b> 하루에 한번! 항주, 수세미, 도마, 싱크대, 주방 배수관 등	<b>세균번식 방지</b> 집안은 물론 식당, 사무실, 공공시설 등의 세균번식 방지에도 좋습니다
<b>전략1</b> 이틀에 한번! 수도꼭지, 양변기 손잡이, 금속 손잡이, 주방 부속물 등	<b>세균성 질병 예방</b> 깨끗한 살균·소독으로 물과 음식물을 통한 세균성 질병을 막습니다
<b>전략1</b> 일주일에 한번! 세면대, 욕조, 변기표면, 욕실 배수관, 주방, 욕실바닥 등	<b>각종 악취제거</b> 싱크대, 방장고, 욕실, 하수구, 쓰레기장 등의 악취를 제거합니다
	<b>천연소금 원료</b> 유한락스는 천연소금으로 원료를 만들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합니다

• 유한락스는 반드시 표시된 비율에 맞게 희석하여 사용하십시오.

• 소비자상담실 : 080-789-5000(무료전화) 유한락스의 이름은 모방할 수 있어도 30여년간 사랑받아온 품질은 결코 모방할 수 없습니다. • www.yuhanclorox.co.kr